

사회적 기억을 위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이해관계자 면담 연구*

The Stakeholder Interview of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Social Memory

박진경(Park, Jinkyung)** · 김유승(Kim, You-seung)***

1. 시작하는 글
2. 선행연구 분석
3. 사회적 기억의 개념
4. 사회적 기억과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5. 면담연구
 - 1) 연구설계
 - 2) 분석
 - 3) 소결
6. 맺는 글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6027).

본 논문은 2017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katiepark850@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 2017년 9월 22일 ■ 최종심사일 : 2017년 10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0월 17일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기억과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이용자와 운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연구를 통한 각각의 경험과 인식의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논한다. 이론 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사회적 기억과 참여형 아카이브 각각의 정의와 상호보완적 개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억을 정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사회적 환경과 공동체 내부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정되고 생성되는 기억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유된 개인의 기억으로부터 집단 기억, 공공 기억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참여형 아카이브를 공동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가 그룹의 지원이 만나 기억과 기록이 저장, 보존, 공유, 확산, 재생산되는 디지털 공간으로 이해한다. 한편, 이해관계자 면담연구를 통해, 참여, 정책, 서비스 영역의 이용자 및 운영자 인식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주제어 : 사회적 기억, 참여형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 이해관계자, 면담연구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social memory and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and argues the various problems of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based on the analysis of individu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throug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users and operators. As a theoretical study, it analyzes related precedent studies and explores the complementary concepts of social memory and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Based on the discussion, the study understands social memory as a defined and generated memory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encompassing politics, socio-culture and the internal relations of the

community. Furthermore, it understands the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 as a digital space in which the communit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users, and the support of professional groups intertwine. The memories and records of this interaction are then stored, preserved, shared, spread, and reproduced. Through stakeholder interviews, the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s of users and operators regarding participation, policy, and service, and identified the various problems with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Keywords : Social memory, participatory archives, digital archives, archives stakeholder, interview

1. 시작하는 글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기억을 능동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한 아키비스트 공동체의 고민이 이어졌다. 개인의 영역이었던 기억이 사회적 담론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의 기억을 보존하여 전승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졌다. Howard Zinn은 1970년 SAA 연례회의 연설 “The Archivist and New Left”를 통해,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가 정치역학에 의해 기록을 편향적으로 남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카이브는 정보와 기록을 구조화하여 전승하는 정치적 기관이다. 기억을 담보해야 하는 아카이브는 역사의 재구성을 위해 사회적 기억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것은 디지털 기록 또한 마찬가지다. 디지털 기록은 자연스럽게 그 기록을 디지털화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판단을 반영한다. 디지털 기록이 선별되어 전시되는 방식은 오프라인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담론과 기억의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기록을 이

용자들이 활용하고 이를 재맥락화 하는 것은 가상공간에서 역사와 기억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아카이브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의 기억, 정체성, 가치의 형성에 기여하며, 사회의 기억 형성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아키비스트와 역사를 보존하려는 공동체 모두를 위한 실천적 디지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를 아카이브에 포함하려는 논의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이 기대만큼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조한 이용자 참여는 참여형 아카이브의 지향과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제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억과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이용자와 운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연구를 통한 각각의 경험과 인식의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는 사회적 기억의 이론적 측면을 논한 연구들과 사회적 기억을 담기 위한 아카이브의 참여적 요소를 다룬 연구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1990년대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억에 관한 학술연구는 기록학 영역뿐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Foote(1990)는 사회적 기억과 아카이브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라는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아카이브를 인간 소통의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장소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아카이브를 사회적 기억을 대변하고, 회복하고, 이해하는 공간으로 해석한 Blouin(1999)에 의해 이어졌다. 그는

기록이 중립적인 사실이 아니라, 선택받아 살아남은 사실임을 지적하며, 기록 생산자와 기록보존소, 아카이브와 이용자, 과거와 현존 기록 간의 중재자로서 사회적 기억을 구축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Jimerson(2003) 역시, 아카이브가 사회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며, 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존된 기록이 전체 사회의 기억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개인기억, 사회적 기억, 역사적 기억, 기록적 기억 등으로 분류되는 기억의 총합은 인간이 과거를 이해하고 교훈을 얻는 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보존기록의 편향성을 인지하고 극복하여 후손들이 한 사회의 역사를 더욱 균형 있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기록을 공유한 구성원들이 기억을 공유하고, 공유된 기억들이 모여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본 Katelaar(2005)에 의해 구체화된다. 공동체란 기억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구성원들은 단지 기억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기억의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록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한편, Bastian(2009)은 기록이 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연구들과는 반대로, 사회적 기억이 기록의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기록보다 기억이 이들 사이 관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다고 보고, 아카이브는 사회의 기억을 연구하고 보존하여 역사를 이해하는 데 배제될 수 있는 기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2010년대 이후의 일이다. 국내 초기 연구성과로는 사회적 기억과 구술의 관계를 모색하고, 구술관리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제안한 최정은(2011), 기록과 기억의 관계를 고찰하고, 사회적 기억을 구축하기 위한 기록학계의 역할을 모색하며,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한 기록학계의 역할로 구술의 의미 모색과 기록의 활용성 제고에 주목한 김명훈(201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사회적 기억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윤은하, 김유승(2016)은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의 기록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담은 기록의 특징과 사회적 기억의 발전 과정을 논하였으며, 신동희, 김유승(2016a)은 기록학 관점에서 사회적 기억의 이론 연구들을 정리하고, 역사와 기록의 근간이 되는 기억의 사회, 문화, 정치적 특성과 이를 다루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의 연대기적 구분과 각 시기별 기록과 기억의 특징 분석을 통해, 기억 주체의 변화가 기록의 질적 양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며, 사회적 기억이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기록에서 소외된 집단의 기억에 대한 가치 부여하는 것이 아키비스트의 사명이라 보았다.

사회의 기억을 위한 아카이브의 참여적 요소는 Daniel(2010), Caswell(2014), Erde(2014) 등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소수 민족 기록화에 있어 기록화 대상이었던 민족공동체가 어떻게 기록화 주체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논한 Daniel(2010)은 소수 민족의 권리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록학에 미친 영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변화의 요인으로 지목하며, 기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과정에 아카이브와 민족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이 소수민족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변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Caswell(2014)은 참여, 관리권한 공유, 다양성, 액티비즘, 성찰이라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담론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을 인권침해 피해자와 생존자 공동체의 기억을 기록화하는 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피해자와 생존자 공동체를 아카이브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카이브 기관이 가장 윤리적으로 폭력적인 과거를 대하는 길이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보았다.

월가점령운동공동체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 전문 아키비스트와 이용자 간 수직적 관계를 허물고 기록관리에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

Erde(2014)는 기존의 아카이브가 누렸던 특권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야말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할이라 규정하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아카이브 운영 주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격적인 참여형 아카이브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는 Gilliland & McKemmish(2014), Sellie 외(2015), Evans 외(2015), Iacovino(2015) 등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Gilliland & McKemmish(2014)는 기록 생산과 관련된 모든 집단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참여형 아카이브를 정체성, 자결권, 문화 권리 등 인권을 확장하고 인류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정하면서, 이를 구축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Sellie 외(2015)는 참여형 아카이브 기반의 기록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관계를 구축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논증하며, 이를 사회운동과 기록학적 실천주의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인 실천적 아카이브(Activist Archives)의 개념으로 확장한다.

한편, Evans 외(2015)는 인권과 사회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참여형 아카이브를 논하였다. 이들은 아카이브 자율성(Archival Autonomy)을 사회 구성원들이 아카이브에 그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담고, 기록관리의 주체가 되어 정체성과 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아카이브 자율성을 실천하고, 사회 정의와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참여형 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Iacovino(2015)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소수자와 원주민들의 다양한 기록 보존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이의 광범위한 구축을 주장하였다.

참여형 아카이브에 대한 국내 연구성과는 다양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안적 아카이브로써 참여형 아카이브에 주목한 이종구, 이재성(2014), 참여형 아카이브의 개방성을 강조한 구축 전략을 제시한 김경훈, 박영우(2016),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한 설문원(2016)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노

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의 일환으로, 참여형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을 논한 박태연, 신동희(2016), 참여형 아카이브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김수진, 신동희(2016), 참여형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제시한 신동희, 김유승(2016b) 등의 연구가 전개되었다.

3. 사회적 기억의 개념

기억에 관한 초기 논의는 개인적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철학자 Bergson은 개인의 정신적 상태의 연속인 ‘지속(Duree)’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억의 토대로 보았다. 그는 ‘지속’이 각 개인에만 귀속되는 속성이 있기에 개인의 기억이 중요하며, 우선적이라고 보았다(최호근 2003, 162). Bergson은 과거의 경험이 통일적 실체를 이루어 완전히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그의 제자였던 Halbwachs는 과거사의 회상은 원래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것인데 외적 자극을 받은 기억이 그것을 복원해내는 것이라는 Leibniz의 주장에 주목하였다(김영범 1999, 568). 그는 기억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억은 사회적으로 집단에 의해 구성되고, 사회적 집단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지를 결정한다(신동희, 김유승 2016a, 42-43). 개인의 기억도 오직 사회적으로 매개됨으로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Halbwachs의 견해였다. 그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Durkheim의 ‘집단의식의 사회학’을 수용한 ‘집단기억(Memoire Collective)’ 이론을 제시하였다. Halbwachs는 특정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기억의 ‘사회적 구성틀(Cadre Sociaux)’로 제시하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억이란 반드시 사회적 구성틀을 통해서만 매개되며, 오직 그 내부에서만 유효하다(전진성 2003, 108). 이렇듯 기억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Halbwachs의 견해는 기억이란 특정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

통과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이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는 Halbwachs(1992)의 주장은 ‘언어’의 개념을 통해 설득력을 더한다. 인간의 기억은 사회적 관계의 산물인 언어를 매개로 삼아 형성된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인간 사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범주다. 따라서 기억이 사회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립된 결과라면 순수하게 개인적인 기억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반대되는 집단을 기억의 주체로 설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기억을 소유하는 단위는 개인이지만, 각 개인이 소유한 기억은 사회적으로 각인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Halbwachs는 기억이 사회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억에 대한 논의는 Foote(1990), Thelen(1989), Ketelaar(2005), Jimerson(2009) 등에 의해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Halbwachs가 주장한 사회적 기억 개념을 기록과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Foote(1990, 380)는 다수의 개인 혹은 기관이 과거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적 활동을 사회적 기억이라 규정하였다. 기억이 구축되고 서술되는 과정에 주목한 Thelen(1989, 1119)은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기억 모두가 공동체, 정치, 사회역학의 관계 아래 형성된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Ketelaar(2005, 1-2)는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것이 사회적 기억이라 보았다. 그는 기억의 공유 과정이 기록, 구술, 혹은 물리적 형태로 구성된 기억 문자(Memory Text)를 통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기억 문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형성되고 배포된다고 주장하였다.

Jimerson(2009)은 사회적 기억이 작은 집단으로부터 공동체,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집단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공헌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기억은 한 사회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며, 가치, 의식, 그리고 미래 행동을 위한 지침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억은 변화하기 쉽고 끈임 없이 재해석되며,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 긍정적이고 생명지향적인 목적 혹은 편협하고 파괴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논하였다.

기억이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기억의 사회성은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 ‘공공 기억(Public Memory)’ 등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집단 기억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갖는 기억이다(Casey 2014, 23). 여기서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시공간적 관계를 반드시 갖지는 않는다. 반면, 사회적 기억은 친족이나 이웃, 지역, 공동체 등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기억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 안에서 기억을 축적하는데, 이 과정은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은 새로운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경험, 역사, 사건 등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다(Casey 2014, 23-24).

이상에 살펴본 다수 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억을 정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사회적 환경과 공동체 내부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정되고 생성되는 기억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유된 개인의 기억으로부터 집단 기억, 공공 기억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4. 사회적 기억과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다수의 학자들은 아카이브가 불편부당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가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아카이브를 대중의 기억을 저장하는 정치적 장소로 보고, 기존의 공공기록 관리제도가 사회의 다양

한 구성원들의 기록을 포괄적으로 보존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¹⁾

Cook은 아카이브와 기억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한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그는 기록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존재성을 부여받은 전통적인 접근 아래, 역설적으로 아카이브는 권력 있는 기록생산자와 주류 문화를 지원하는 것을 강하게 선호하였다고 보았다(Cook 2005, 173).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억’과 ‘망각’은 한 사회의 실질적, 문화적, 정치적, 상징적, 감정적, 윤리적 의무를 총체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그 사회의 권력, 정체성, 그리고 특권의 중심을 상징하며(Cook 2013, 101), 사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억과 망각 현상은 특히 아카이브에서 일어난다(Cook 1997, 18). 즉, 아카이브는 한 사회의 권력과 특권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사회적 기억을 담는 장소다. 더 나아가, Cook & Schwartz(2002, 172)는 아카이브가 사회적 기억을 위해 사회의 경험, 인식, 내러티브, 이야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기억은 아카이브에서 발견되거나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아키비스트는 “기억 생산의 주연”이라고 묘사하였다. 이들은 기억과 아카이브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기억은 역사처럼 아카이브에 뿌리박혀 있다. 아카이브 없이 기억은 불안정해지고, 지식은 희미해지며, 공유된 과거의 영광은 소멸된다.”
(Schwartz & Cook 2002, 18)

Cook과 Schwartz는 아카이브를 사회의 기억뿐 아니라 지식과 역사를 포함한 사회의 근간을 담보하는 핵심 기관으로 보았다. Cook 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기억 기관으로서 아카이브 역할에 주목했다.

1) 아카이브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Cook(2001), Brothman(2001), Cook & Schwartz (2002), Schwartz & Cook(2002), Ketelaar(2002), Harris(2002), Nesmith(2002), Greene (2002), Kaplan(2002), Fredriksson(2003) 등을 참조.

Foote(1990, 380)는 다수의 개인 또는 기관들이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기록 관련 활동들을 사회적 기억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Ketelaar(1997, 147)는 사회 구성원들이 아카이브를 생성, 가공, 평가, 이용하는 데 있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사회 구성원과 아카이브의 관계가 아카이브와 국가와의 관계로 확장되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기억의 생산자이자 저장소로써 아카이브의 역할에 주목한 Blouin(1999, 109)은 사회적 기억이 과거를 복합적 상황과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고 보았으며, Brothman(2001, 79)은 기억이 현재의 목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며, 아카이브는 그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의 새로운 관계에 주목한 것은 기록학 연구자뿐만은 아니었다. 프랑스 사회학자 Nora Pierre는 현대의 기억을 기록이라 보았다. 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경험된 기억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기억들이 외부적 요소인 기록에 의해 존재한다. Pierre(1989, 13)의 관점에서 기억의 소명은 기록이며, 아카이브는 사회적 기억의 책임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ssmann은 기록관과 기억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신체와 장소에 묻어 있는 감각적으로 구체화된 기억과는 달리, 아카이브는 그 신체 및 장소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집단적 지식 저장소로서의 아카이브에 대한 전제는 기억의 보조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물질적 자료의 보유체,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문서가 있다는 점이다. [...] 아카이브는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장소기도 하다.”(Assmann 2003, 24)

Assmann의 관점에서 기억과 기록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상호보완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록은 과거의 기억을 저장하거나 복원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Lowen(1999, 38)은 사회가 생산한 역사적 기록물을 보면, 어떠한 집단이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다고 보았으며, 백인 엘리트 집단으로 대표되는 사회 일부 집단이 공공의 기억에 대한 통제가 왜곡된 역사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억과 아카이브의 관계를 재조명한 학자들은 아카이브가 그 시대의 권력관계, 정치구조, 사회적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기록의 선택적 보존은 정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며,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태지호 2012, 19).

아카이브에서 기억을 연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기록에서 소외될지 모르는 과거의 일부를 채울 가능성을 열어준다(Bastian 2009, 119). 사회적 기억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복합적인 사회적 체계와 관련하여 새롭게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즉, 사회적 기억은 아카이브 기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요인은 개인 기억뿐 아니라 공동의 기억에 작용하게 되며, 이는 기억의 사회화와 공적 영역화를 가능하게 한다(신동희, 김유승 2016a, 43). 기억과 기록이 공동의 영역으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록이 사회의 기억을 반영한다면, 그 기록을 보존하여 전달하는 아카이브는 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기억을 남길 의무를 지닌다.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선택, 보존하는 활동의 동기 역시 그가 속한 사회의 사회적 기억을 반영한다(Sinn 2012, 46). 기억과 아카이브, 아키비스트의 필연적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키비스트 역할에 관한 논의는 ‘실천적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 개념을 통해 이루어졌다.²⁾ 실천적 아

2)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은 1960년대 고양되기 시작했던 흑인민권운동, 반전평화운동 등에 영향을 받은 기록학계의 엘리트주의, 비민주적 아키비스트 역할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 SAA 연례회의에서 Howard Zinn은 연설을 통해 아키비스트가 전문성과

키비스트에 대한 담론은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제도적 울타리 뒤에서 기록을 이관받는 인수자에서, 공동체 기록화를 격려하는 조언자이자 지도자로 변화시켰다(Cook 2013, 114). 사회적 기억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의 기록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으로 해석되는 것은 디지털 기록 또한 마찬가지다. 디지털 기록은 기록을 디지털화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디지털 기록이 선별되어 전시되는 방식은 오프라인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담론과 기억의 영향을 받는다(Sinn 2012, 46). 현대 디지털 환경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참여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기록화를 통한 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웹 2.0으로 대표되는 개방형 디지털 기술은 이용자들을 기록의 생성, 수집, 활용, 보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동체가 디지털 공간에서 생성, 수집, 공유하는 수많은 기록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회, 문화적 규범을 표출하며,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Srinivasan & Shilton 2006, 129). 이미 많은 기록관, 도서관 및 박물관은 이용자와 자원 및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개방형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다(Sinn 2012, 46).

현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억을 공유한다. 참여와 공유의 문화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참여와 공유에 대

중립성에서 벗어나 평화, 평등, 정의라는 인간적 가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Zinn의 주장은 1974년 Gerald Ham의 연설 'The Archival Edge' 에 등장한 '활동적 아키비스트(Active Archivist)'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당시 실천적 아키비스트에 관한 논의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완전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집, 평가 과정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1990년대 기록학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한 후, 아키비스트 역할은 소수 공동체의 기록화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가로서 논의되었다. 19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천적 아키비스트 담론은 기록화의 다양성을 넘어, 권력 분산적 아카이브 전략을 포함한 참여형 아카이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현정 2014, 219-223).

한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려는 아카이브의 노력을 현실화 하는 데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회의 기억 형성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아키비스트와 기억을 보존하려는 공동체 모두를 위한 디지털 공간이다.

하지만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아카이브 구축과 유지를 위한 기록의 생산자, 이용자, 관리자 간의 역할 분산에 초점을 둔 Huvila(2008), 공동체의 자발성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기록의 생산, 저장, 공간의 구성을 강조한 Cook(2013, 113-116), 네트워크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이 자발적 지식과 자원의 공유 기증을 바탕으로 기록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조직, 장소, 컬렉션이라는 다중적 의미를 제시한 Theimer(2016) 등 참여형 아카이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론 다른 정의 속에서도 참여형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의 자발적 기억과 기록의 공유’, ‘참여와 공유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진경, 김유승 2017, 22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공동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가 그룹의 지원이 만나 기억과 기록이 저장, 보존, 공유, 확산, 재생산되는 디지털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5. 면담연구

1) 연구 설계

인터뷰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아카이브를 설계, 개발하고 있는 운영자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용자 그룹은 문헌정보학, 기록학 전공자, 그리고 비전공자 중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

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로 선정하였다. 운영자 그룹은 학술 연구와 함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국내 운영자로 선정하였다. 면담 참여 인원은 이용자 12명, 운영자 9명, 총 21명이었다. 면담은 2017년 1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약 12주 동안, 개방형 질문지를 바탕으로, 대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인당 평균 면담시간은 약 45분이었다.

면담연구는 연구자가 작성한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박진경, 김유승(2017)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면담 대상의 소속 그룹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하였다. 이용자 그룹에게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참여, 정책, 서비스 측면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어서, 아카이브 이용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확장 여부, 추후 아카이브 참여 의향을 질문하였다. 운영자 그룹에게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운영 목적,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해법, 그리고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미래적 가치와 전망에 대해 질문하였다.

2) 분석

다음에서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이용자와 운영자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면담 결과 분석은 이용자 집단과 운영자 집단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 이용자

면담 대상 이용자들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한 방식은 브라우징, 검색, 그리고 스크랩 순이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이 모아 놓은 자료를 검색은 할 수는 있겠구나 싶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소개란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이용자 F)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참여형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홈페이지만 그냥 보면 누가 알겠어요.” (이용자 L)

대다수의 면담 대상 이용자들은 참여형 아카이브의 의미와 목적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아카이브에서 본인이 무엇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손쉽게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용자들이 아카이브의 참여 기능에 접근하기까지 겪었던 문제점은 아카이브가 이용자 역할 부여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아카이브를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이 한눈에 이용자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사이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인식할 수 없었어요. 메인 페이지만 봐도 무엇을 위한 사이트인지 알 수 있게 목적이 뭐고, 참여 기능은 뭐고, 잘 보이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용자 F)

상당수의 면담 대상 이용자들은 대부분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아카이브라는 개념조차 낯설어 했다.

“아카이브라는 말은 뭔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우연히 들어왔을 때 매우 한정된 사람들만의 사이트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용자 H)

“생소한 분야에 대해 왜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엇을 기증할지에 대한 가이드나 예시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카이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자 K)

이용자들은 생소한 아카이브 용어에 대한 쉬운 해설과 보충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전문가에게는 친숙한 전문용어의 무심한 사용이 이용자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운영자에게는 익숙한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 기억 등의 개념이 이용자들에게는 낯선 개념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이용자들은 아카이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아카이브 자체를 아예 사람들이 모르고, 기록, 기억, 이런 단어도 일상에서는 잘 안 써요. ‘기록을 하다’라는 말도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대체할 만한 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용자 J)

“일반 사람들은 아카이브, 기록, 기여라는 단어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기록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질 텐데 [...]” (이용자 G)

다수의 이용자들은 아카이브의 콘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콘텐츠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용자들은 아카이브 콘텐츠가 그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술한 디지털 콘텐츠들에 비해, 다양성과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문서를 스캔만 해서 업로드 해놓아서 읽기 지루하고 불편했습니다.” (이용자 G)

“아직 시작단계라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내용이 가공이 덜 된 상태로 보여요.” (이용자 L)

“현 상태로는 우연히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더라도 그 이상 지속적으로 시간을 소비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용자 K)

이용자들은 원자료 상태로 제공되는 아카이브 콘텐츠가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가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눈에 들어오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용자 G)

“콘텐츠와 관련된 추가적 배경설명이 있으면 보기 편할 듯해요.” (이용자 A)

콘텐츠의 품질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형 아카이브는 원자료 상태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아카이브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자료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2차 콘텐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이용자들은 아카이브 콘텐츠의 전문성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용자 공유 콘텐츠의 신뢰도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제한 없이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분명히 왜곡된 정보를 올리거나 비방하는 글들도 올라올 텐데 그 안에서 사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위키피디아나 뉴스

댓글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용자 F)

“누구나 자료를 올릴 수 있다는데, 그러면 사실 검증과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제시하는 것인지 [...]” (이용자 G)

다양한 참여자들이 제공한 콘텐츠는 같은 주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들은 공유 콘텐츠를 전시할 경우, 운영자들이 이를 검토 후 별도로 표기하거나 분류하여 아카이브 콘텐츠의 신뢰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친숙했지만,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널리 활용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과 참여적 요소에 대한 인식 부족은 면담에 참여했던 이용자들 대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아카이브에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이미 생각을 다 쓰고 있어요. 참여형 아카이브에 대해 전혀 모를 걸요.” (이용자 F)

“아카이브에 가지 않아도 기록은 넘치고, 구글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용자 H)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찾아보지, 굳이 아카이브까지 찾아와서 뭔가를 업로드하고 그러진 않죠.” (이용자 J)

이용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을 아카이브로 유도할 수 있는 “흥미를 끌만한 기능과 주제(이용자 F)”, “흥미롭거나, 전문적인 콘텐츠(이용자 G)”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용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아카이브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전문 주제와 참여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카이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자칫 아카이브를 배타적 영역에 고립시킬 수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전문적이라고 느꼈다. 한 이용자는 “실제 이용보다 연구 목적으로 너무 구축에만 중점을 둔 것은 아닌가…” 라고 충고하기도 했다(이용자 C).

이용자들의 요구와 같이, 아카이브의 전문적 요소와 개방적 요소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문성과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은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의 소통 문제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언급한 부분이었다.

“이용자들끼리는 댓글로 피드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카이브 운영자와 소통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용자 A)

“아카이브 운영자들과 쉽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나중에 다시 참여하기는 힘들죠.” (이용자 D)

이용자들과의 소통 없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용자들은 운영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했다. 면담자들이 접한 아카이브 중 이용자와의 소통이 원활했던 곳은 거의 없었다. 이용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아카이브도 없었다. 아카이브 운영자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질문했을 때 일주일 넘게 답변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한다(이용자 C). 이용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확산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와 대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형 디지털 아니더라고 자신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필요한 사람이 와서 기록을 수집해야지 이용자가 아카이브까지 가서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운영자가 이용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야지. [...]” (이용자 F)

이용자들은 운영자들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기록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이나 강연을 진행한다면, 실제 아카이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인 도움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기록이랑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직접 가서 아카이브를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면서 알려줘야죠. 그래야 참여 기능도 설명하고 보급도 되고 하는 거죠.” (이용자 L)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남긴 기록이 10년 뒤에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참여 방법을 모를 뿐이죠. 아카이브는 뭐고, 디지털화는 뭐고, 참여형은 뭐고, 설명해 줘야죠. 대뜸 웹사이트 가보세요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라고 할 거예요.” (이용자 F)

이용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디지털 환경에 소외된 계층의 경험과 기억을 아카이브에 포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특정인들에게만 홍보하면 그 사람들만의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기억을 구술로 받아서 정리해서 디지털화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용자 L)

“실버 세대들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자신의 삶을 남기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알리고 기록을 받아와야 진정한 참여와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자 G)

이용자들은 운영자들이 참여의 기술과 방법을 논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 공동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용자들이 언급했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제점들은 역설적으로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 소통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용자 참여를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결국 참여의 경로와 공간이 기술로 대체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참여 의지는 사그라지고 있었다.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 소통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인지도와 공감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참여 경험 전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다양성과 개방성이라는 관점에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공식 기록이나 지식이 아닌,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다.

“한 주제에 대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억이 다른데 거기서 오는 빈 공간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용자 A)

“특정 사건, 집단,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형 아카이브를 통해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용자 E)

이용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점차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기술적으로 개선이 돼서 보기 쉽고, 질적으로 풍부해지면 사람들이 방문할 것 같아요.” (이용자 L)

“우연히 방문했다가 참여했던 경험이 좋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다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도 그랬던 것처럼요.” (이용자 B)

이렇듯 이용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점진적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감을 얻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일부 이용자는 아카이브 이용뿐 아니라 개발 및 운영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어요. 분류까지는 못하겠지만 기술(description)은 참여할 의향이 있고, 반영된다면 뿌듯할 것 같아요.” (이용자 A)

“주제에 적합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하고 싶어요. 만약 공유하게 된다면 제가 공유한 자료를 기술하고 가능하면 분류에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이용자 D)

반면, 몇몇 이용자들은 콘텐츠 제공, 댓글달기 등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참여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참여시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 언급했다.

“내가 제공한 기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무서워요.” (이용자 F)

“업로드 할 때 이것저것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 (이용자 H)

한 이용자는 “기억은 개인적인 것이라 대중화 되는 것이 싫다”고 언급하면서 기억은 온전히 개인의 영역이라 이를 공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용자 K). 또 다른 이용자는 “그때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싫다”며 비극적인 사건을 떠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이용자 I). 이처럼 여전히 기억의 사회적 맥락과 참여의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 운영자

운영자들은 아카이브가 독점해왔던 기록 생산과 보존의 권한을 다양한 사회 공동체와 나눈다는 점에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의를 찾고 있었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회 공동체의 경험과 기억을 담는 열린 아카이브를 위한 논의와 시도입니다.” (운영자 E)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닫힌 저장고가 아닌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 기존의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기관이 기록의 생산을 통제했는데 이 권한을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운영자 D)

“이용자와 운영자가 아카이브의 목적을 함께 공감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 개발과정부터 이용자와 함께 활발히 피드백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운영자 B)

운영자들은 특히 사회의 경험과 기억을 보존하는 아카이브에서 이용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주제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고 싶어요. 사건이 아닌 ‘사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계획하고 있어요. 기억의 사회적 과정이 더 중요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생각해요” (운영자 A)

운영자들은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경험과 기억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운영자들은 공동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아카이브를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통의 부족 문제와 괴리되는 부분이다. 운영자들은 아카이브를 설계하고 개설하는데 쏟는 노력만큼, 장기적 관리와 운영에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운영자들은 실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다. 우선, 운영자들은 일시적인 재정 지원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경제적인 면이죠. 설계를 하는데 [...] 기능을 구축하고 스캔하고 분류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누가 해야 하는지도 흐지부지 될 수 있고 [...]” (운영자 B)

“운영 주체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아카이브의 운영 기간과 아이템의 질적 관리 등이 결정됩니다.” (운영자 F)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아카이브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카이브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운영자들의 의견이다.

“시스템이나 기능들이 5년 후에도 유용한 기능일지는 모르는 일이니 [...]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어려움이죠. 재정적인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용자 참여 기능에 대한 보장 또한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 (운영자 A)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수집하고 보존한 기록의 경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기록이 많기 때문에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운영자들의 설명이었다.

“기록물의 상태가 나쁘다면 일반적인 스캐너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버헤드 스캐너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비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자 C)

현재 국내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는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한시적 프로젝트 성격으로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아카이브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재정 지원이 종료되어 유지 및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운영자는 공공영역에서 수행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예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DB 구축사업은 적게는 오천만 원에서 많게는 일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록물 양과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요. 민간영역에서도 적어도 그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죠 [...]” (운영자 I)

재정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운영자들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은 면담 대상 운영자 대부분이 공감했던 문제였다. 운영자들은 “이용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힘들게 개발했는데 방문자가 없다(운영자 C)”
며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
움을 드러냈다. 운영자들은 아카이브 활용이 저조한 이유를 서비스 측면에
서 바라보고 있었다.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측면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운영자 F)

“이차적 서비스가 잘 되지 않으니 이용자들이 방문한다고 해도 재방
문율이 떨어지고, [...]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를 위한 가공 서비스가 필
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영자 B)

운영자들은 아카이브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콘텐츠와 서비스의 품질에서
찾고 있었다. 이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에 이용자들이 만족하
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를 위한 가공 서비스가 필
요하다고 생각해요. 흥미로워야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 (운
영자 B)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
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 우선, 홍보와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구성하면
그걸 보면서 이용자들이 자기만의 컬렉션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운영자 E)

“레슨 플랜을 짜주거나 학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면 콘텐츠를 조금 더 수준 높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자 A)

운영자들은 교육용 가이드나 홍보용 동영상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면, 콘텐츠 이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용도도 상승할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시각적 효과가 큰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운영자들의 의견이었다.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시각전달효과가 큰 기술을 이용해서 주제와 관련된 시각적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운영자 C)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과 같이 시각적 효과가 큰 기술을 활용하면,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자 I)

이미지, 동영상 등 단시간에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 가공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이렇듯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콘텐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용자들을 아카이브에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운영자들은 이용자 그룹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디지털 방식에서만 운영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 그룹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부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근하게 되는 계기와 경로, 그리고 이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용자 방문기록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용자 패턴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으니까 [...]” (운영자 E)

현재 많은 정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웹로그 기록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분석하는 웹애널리틱스 기술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자들의 홈페이지 방문과 이용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용자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카이브가 실제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다수의 운영자들이 언급한 부분이었다.

“대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용자 프로파일링, 타겟팅을 해서 일반적인 교육 매뉴얼이 아닌 이용자 그룹별로 특수화된 이용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 (운영자 B)

이용자 분석의 중요성은 프로모션 방식을 논하는 데 있어 특히 강조되었다. 운영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이용자 그룹을 파악하고, 각 이용자 그룹에 최적화된 프로모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형 아카이브의 주 이용자에 좀 더 특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각각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그 커뮤니티에 맞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홍보 슬로건 또한 상대가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슬로건으로 홍보해야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영자 D)

“이용자에 따라 다른 프로모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 홍보할 경우는 직접 찾아가 녹취를 받는 방법을, 젊은 사람들에게 홍보

할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자 G)

운영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인지도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운영자들은 기존에 확산되어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서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연관검색어 등에 검색 가능하도록 [...]” (운영자 C)

“지자체 홈페이지에 링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반 포털보다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합니다. 구인광고도 구인사이트보다 지자체 공고란에 올리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퍼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운영자 I)

그 외에도 운영자들은 디지털 프로모션의 방식으로 “학회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한 학술적 홍보(운영자 A)”, “아카이브 통합 검색포털 구축(운영자 C)” 등 “다양한 홍보 방식(운영자 B)”을 들었다. 운영자들은 디지털 프로모션과 더불어 아웃리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아키비스트가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수집도 하고 [...] 이렇게 하면 참여라고 하기 모순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시선을 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찾아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운영자 A)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몫이죠.” (운영자 C)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단순히 참여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공동체를 아카이브에 포함하기 위한 운영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인식도와 여러 가지 과제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은 다양한 공동체를 포괄하는 아카이브의 논의와 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영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와 아카이브의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개방, 공유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존의 아카이브가 누렸던 독점적 권한을 이용자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자 D)

“아카이브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결국 이용자입니다.” (운영자 C)

이렇듯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회의 기억과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모든 사회 공동체가 함께 형성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운영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참여형 아카이브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운영자 B)

“최근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기존의 기념사업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영자 D)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이 기존의 실물 자료와 물품 등을 수집, 전시,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이를 디지털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람들의 기억을 재생산해내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김세진·이재호기억저장소³⁾, 세월호아카이브⁴⁾ 등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예다. 운영자들은 “건전한 참여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된다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도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운영자 G)”이라고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3) 소결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 경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참여, 정책,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적 측면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견은 참여 기능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과정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은 원인은 낯선 홈페이지 구조,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부족 등이었다. 이용자들은 아카이브의 목적과 의미에 공감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용어와 이용자 역할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회원 가입 의무화 등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이용자들은 이용 가이드의 부재, 콘텐츠 내용 및 맥락 정보 부족 등 불친절한 설명으로 인해 아카이브 이용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아카이브 이용 절차와 정책 등에 관한 쉬운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일관성 없는 분류 기준, 중복 분류, 보기 불

3) 2016년, 1986년 서울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30주기를 맞아 구축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김세진·이재호기억저장소는 열사들의 개인기록, 추모기록, 신문기사 등을 정리함으로 후배 세대들과 역사적으로 소통하고, 현재는 50대가 된 당시 대학생들의 삶과 연대를 공유하고 있다(검색일자 : 2017. 5. 4. <http://snu.osasf.net/about>).

4) 세월호 참사 기록과 참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7년 구축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검색일자 : 2017. 5. 1. <http://sewolarhive.org/>).

편한 전시 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아카이브가 체계적인 분류와 효율적인 전시 방식을 갖추어 콘텐츠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할 것을 조언하였다.

서비스 측면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견은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제시되었다. 콘텐츠 영역에 대한 의견으로는 콘텐츠의 구성과 품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용자들은 아카이브가 콘텐츠를 보다 다양하고 흥미롭게 구성하고, 가공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 전문성, 독자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견은 아카이브 운영자와 이용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용자들은 아카이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운영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과 기억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아카이브를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향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자들은 아카이브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쏟은 노력만큼, 장기적 관리와 운영에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실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과 운영 과정에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운영자들이 언급한 첫 번째 어려움은 재정 지원 부족이었다. 일시적 재정 지원은 아카이브의 구축뿐 아니라 장기적 운영 및 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운영자들이 언급한 두 번째 어려움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운영자들은 아카이브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서비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아카이브 콘텐츠와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콘텐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홍보 및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 시각적 효과가 콘텐츠 전시 기술 도입, 콘텐츠 가공 서비스 등이 제안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측면에서 운영자들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용

자 요구 분석의 중요성은 특히 프로모션 방식에 관한 논의가 강조되었다. 운영자들이 고려하는 프로모션 방식은 소셜미디어채널 활용,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학술적 홍보, 아카이브 통합 검색포털 구축 등으로 다양했다. 운영자들은 디지털 프로모션과 더불어 아웃리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아키비스트가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낮은 인식도와 여러 과제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은 다양한 공동체를 포괄하는 아카이브의 논의와 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건전한 참여 문화가 정착된다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도 하나의 문화로써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 맺는 글

현존하는 대다수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역설적으로 낮은 이용자 참여라는 장벽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의 단면을 관찰하고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와 운영자의 준비 모두에서 산적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마술지팡이와 같은 해법은 없다. 한동안 또는 오랜 시간, 우리는 이 문제들과 씨름해야 할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 이용자 그리고 현장의 운영자들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오늘을 사는 평범한 이들의 기록이야말로 오늘과 미래의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억과 기록이 독점되었던 시간들은 지나갔다. 그 시간들을 되돌리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이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일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 되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다. 이 큰 부름

의 작은 응답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고민하는 우리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깊어져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더 큰 우리가 필요하다. 오늘과 내일을 기억하고, 이를 역사로 기록하며, 공동체와 함께 재생산하는 방식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질 우리가 필요하다.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참여형 아카이브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논의의 더 큰 물결이 열리길 소망해본다.

〈참고문헌〉

- 김경훈, 박영우. 2016.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을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방안 연구. 『한국문화기술』, 20, 45-72.
-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기록학연구』, 42, 3-35.
- 김수진, 신동희. 201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기록학연구』, 49, 5-49.
- 김영범. 1999.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社會科學研究』, 6(3), 557-594.
- 박진경, 김유승. 2017.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2), 219-243.
- 박태연, 신동희. 2016.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21-150.
- 설문원. 2016.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평가론의 재조명. 『기록학연구』, 48, 210-252.
- 신동희, 김유승. 2016a.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59.
- 신동희, 김유승. 2016b.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 윤은하, 김유승. 2016. 노근리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 이종구, 이재성. 2014. 노동아카이브의 형성과 발전방향 모색. 『기록학연구』, 41, 175-212.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기록학연구』, 42, 213-243.
- 전진성. 2003. 기억과 역사: 새로운 역사 문화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사역사학보』, 8, 101-140.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 태지호. 2012. 영상재현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 최호근. 2003.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159-189.
- Assmann, A. 1999.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C.H. Beck Verlag. (변학수 외 역. 2003. 『기억의 공간』.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Bastian, J. A. 2009. Flowers for Homestead: A Case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The American Archivist*, 72(1), 113-132.
- Blouin Jr, F. X. 1999. Archives, Mediation, and Constructs of Social Memory. *Archival Issues*, 24(2), 101-112.
- Brothman, B.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48-80.
- Casey, E. S. 2014. Public Memory in Place and Time, in K. R. Phillips. (eds.). 2014. *Framing Public Memory*.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Caswell, M. 2014.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 307-322.
- Cook, T.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7-63.
- Cook, T.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3-24.
- Cook, T. 2005. Remembering the Future: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in Archives, Documentations,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Cook, T. 2013.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2), 95-120.
- Cook, T & Schwartz, J.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From (Postmodern) Theory to (Archival) Performance. *Archival Science*, 2(3), 171-185.
- Daniel, D. 2010.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73, 82-104.

- Erde, J. 2014. Constructing archives of the Occupy movement. *Archives & Records*, 35(2), 77-92.
- Evans, J., McKemmish, S., Daniels, E. & McCarthy, G. 2015. Self-determination and archival autonomy: advocating activism. *Archival Science*, 15, 337-368.
- Foote, K. E. 1990.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53, 378-392.
- Fredriksson, B. 2003. Postmodernistic Archival Science - Rethinking the Methodology of a Science. *Archival Science*, 3, 177-197.
- Gilliand, A. J. & McKemmish, S. 2014. The role of participatory archives in furthering human rights, reconciliation, and recovery. *Alanti*, 24(1), 79-88.
- Greene, M. A. 2002. The Power of Meaning: The Archival Mission in the Postmodern Age. *American Archivist*, 65, 42-55.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ris, V. 2002.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1), 63-86.
- Huvila, I. 2008.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s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s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8(1), 15-36.
- Iacovino, L. 2015. Shaping and reshaping cultural identity and memory: maximising human rights through a participatory archive. *Archives and Manuscripts*, 43(1), 29-41.
- Jimerson, R. C. 2003.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s & Services: International digital library perspectives*, 19(3), 89-95.
- Jimerson, R. C.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Kaplan, E. 2002. Many Paths to Partial Truths: Archives, Anthropology, and the Power of Representation. *Archival Science*, 2, 209-220.
- Ketelaar, E. 1997. The Difference Best Postponed? Cultures and Comparative Archival Science. *Archivaria*, 44, 142-148.
- Ketelaar, E. 2002.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 131-141.
- Ketelaar, E. 2005. Sharing: Collected memories in communities of record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44-61.

- Lowen, J. 1999. *Lies across America: What our Historic Sites Get Wrong*. New York: New Press.
- Nesmith, T. 2002.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65, 24-41.
- Pierre, N.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emoire. *Representations*, 26, 7-24.
- Schwartz, J & Cook, T.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 1-19.
- Sellie, A., Goldstein, J., Fair, M. & Hoyer, J. 2015. Interference Archive: a free space for social movement culture. *Archival Science*, 15, 453-472.
- Sinn, D. 2012. Archival Memory on the Web: Web 2.0 Technologies for Collective Memory.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45-68.
- Srinivasan, R. & Shilton, K. 2006. The South Asian Web: An Emerging Community Information System in the South Asian Diaspora. Proceedings of the 9th Participatory Design Conference. New York: ACM, 125-133.
- Thelen, D. 1989. Memory and American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5, 1117-1129.
- Theimer, K. 2016. Exploring the participatory archives, ArchivesNext (blog), available at: <<http://archivesnext.com/?p=2319>> [accessed 2017.2.14.]